

지역 매 아리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 2년연속 최우수군 선정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농기계임대사업 주관으로 실시하는 2019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선정돼 농기계 구입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인력과 조직, 사업성과, 임대료 수준, 수요자 만족도, 농기계정책 적합도 등 7개 항목 17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은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비를 3억에서 1억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해부터 농업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농기계 운송 서비스와 영농편의를 위한 토요일 근무 확대, 소형특수 농기계 면허취득지원 사업 등으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남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해 남부권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신기종 농기계의 지속적인 확보로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청 씨름단, 찾아가는 재능기부 '씨름 교실' 운영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감독 박희연)이 학교체육 활성화와 씨름 저변 확대를 위한 재능기부에 나섰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주 조촌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씨름 교실'을 운영했다.

전라북도체육회 주관으로 실시된 씨름 교실에는 170여 명의 6학년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씨름의 이론부터 기본적인 동작까지 현직 선수에게 직접 씨름기술을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박희연 감독은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를 배우며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하는 씨름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단풍미인씨름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역 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실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황토 땅에서 자란 밤고구마가 17일부터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남녀노소 영양간식으로 '인기'

고창군 황토땅서 자란 달콤한 '밤고구마' 첫 수확 속성재배기술로 가을 고구마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 간식 고구마. 겉보라엔 못생겼지만, 영양 만점이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다.

명품 고구마 산지인 고창 대신면 일원은 서늘한 해풍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구마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고창은 게르마늄과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한 황토지대다.

고창군 황토 땅에서 자란 밤고구마가 17일부터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갔다. 밤고구마는 수익 열은 노란색을 띠며, 수분이 적은 편으로 속살이 단단하다.

일반적으로 고구마는 정식 후 약 150일(5개월)의 정도 자라야 한다. 하지만 속성재배기술(비닐멀칭 후 이종터널 설치)을 도입한 이번 고구마는 재배기간을 한 달 이상 앞당겨 수확하게 되면서 여름 휴가철 꼭 챙겨야 할 영양 간식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여기에 가을 고구마에 비해서도 kg 당 2000원 이상 비싼 값에 거래되면서 농가소득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 수확하는 여름 밤고구마는 고창의 황토 땅에서 자라 게르마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 꿀처럼 달다.

앞서 고창황토배기 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이하 고구마연합)은 이마트와 고구마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을 출하성수기까지 약 1000톤 정도의 고창 고구마가 전국 이마트 매장 등에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홍콩 등 동남아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고창고구마의 명성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 증대와 판로개척의 일거양득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올바른 손 씻기로 수족구병 예방해요"

정읍시보건소, 영유아 수족구병 유행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정읍시보건소가 최근 수족구병이 크게 유행함에 따라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한다. 특징적인 증상은 발열, 입안의 물집

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며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침과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 또는 대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쉼터' 희망자 모집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24일까지 '쉼터'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쉼터는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치매 환자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를 늘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 부담 또한 덜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포함한 국가지원서비스 신청 대기자와 미신청자다.

쉼터에서는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인지 강화 교실과 치매 환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한지공예 교실과 노인춤 교

보건소 관계자는 "수족구병 예방과 전파 방지를 위해 올바른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므로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는 아이를 돌볼 때 손 씻기를 비롯해 장난감과 교구 등 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등원과 외출 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실, 공예와 요리 교실, 원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와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설문 등을 실시, 치매 환자의 우울증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도울 예정이다.

쉼터는 오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주 3회 운영된다.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539-6735)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보건소, 수두 유행 예방수칙 준수 당부

부안군보건소는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수두 의심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두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부안군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에도 환자 진료 시 수두증상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하며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물집이나 수포가 1주일 가량 발생하며 물집성 병변에 직접 접촉하거

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학교·학원 등 단체생활을 하는 9세 이하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으며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모든 피부병변(물집)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학교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17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초청해 '농민을 위한 뚝방을 짚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농민 위한 뚝방을 짚시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시청 공무원·농민 대상 특강 실시

정읍시가 17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초청해 '농민을 위한 뚝방을 짚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열린 특강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유재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장,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등 600여 명의 공무원, 농민, 농협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병원 회장은 강연에서 "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듯 지금까지 희생을 거듭해 온 농업에 우리 사회가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운을 뗐 뒤 "이제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농업의 가치는 28조 원에 육박한다"면서 "농협이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인 결과 1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강연 말미에 뚝방당이를 뜻하는 '뚝방'을 비유로 들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농협과 농민

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자체와 농협, 그리고 농민단체가 힘을 모아 농업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거대한 뚝방을 만들어 놓는다면 농민은 이러한 수단을 활용해 농가소득도 올리고,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 단 한결음이라도 함께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을 들은 농민들은 "강연을 듣기 전에 농업의 가치가 이렇게 큰지 몰랐다"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농민을 위한 뚝방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시는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 저명인사 초청 특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지난 3월 신계륜 신정치문화원 이사장, 6월 박동기(췌)호텔롯데 롯데월드 대표이사 초청 특강에 이은 세 번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 초청 특강을 실시해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 ad lists different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